

[종합·해설]

“선거운동은 어떻게 하라고..”

바뀐 선거구 국회 통과 지연 예비후보자들 하소연

18대 총선에서 ‘강진·완도’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선거구 통합으로 인해 인근 ‘해남·진도’ 선거구에 합쳐진 완도를 방문, 유권자들을 만난 뒤 내친 김에 해남과 진도에서도 명함을 돌리며 선거운동을 하려 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지를 당한 것이다.

당초의 선거구인 ‘강진·완도’ 대신, 새로 생긴 ‘해남·진도·완도’ 선거구에 출마할 뜻을 굳힌 A씨는 거세게 항의했으나 ‘정부가 선거구 획정을 공식으로 공표하지 않아,

당초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선거구와 다른 곳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백없이 물러나야 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정계특위)의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국무회의의 승인을 거쳐 정부의 공표가 있어야만 다른 지역에서 선거 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결국, A씨는 국회정계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을 정부가 공표할 때까지는 ‘해남·진도·완도’ 선거구 중 완도

에서만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뿐 당분간 해남과 진도에선 손을 놓고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A씨는 “강진·완도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해남·진도에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방안도 생각해봤지만 현실성이 없어 포기했다”며 “유권자를 한 명이라도 더 만나 이름을 알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손·발이 묶인 만큼, 정부와 국회의 발 빠른 조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같은 선거구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해남을 방문하려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방문

일정을 취소한 B씨도 “선거운동 시간도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해 곤혹스럽기만 하다”며 “선거구 획정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융통성 있는 선거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 “통합안이 예상되는 선거구의 예비후보들은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새로운 선거구에 등록한 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계특위의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로, 국무회의의 결정을 거쳐 29일엔 공표될 예정이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의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정책 서민에 초점 맞춰라”

이명박대통령 첫 수석비서관회의 주재...민생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대통령도 주말에는 민생현장을 찾겠다”며 현직 중심의 민생정책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도 청와대가 아닌 현장에서 받아야 한다”며 “또 청와대에만 있으면 서민이 어떻게 사는 지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현장감각이 떨어지지 않도록 수석비서관을 비롯, 비서진도 노력해 달라”고 주문한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

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예를 들어 음식점을 가더라도 ‘대통령이 찾았다’는 말이 나오도록 해야 한다. 다만 과중한 경호로 번거로운 행사가 될 경우 국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만큼 너무 엄중한 경호가 되지 않고 간편하게 다닐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청와대 공식행사는 실용적 형태로 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행사가 돼야 한다”며 “아울러 대통령

행사의 의전관계도 실용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각 부처들과 의논해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관계없이 모든 정부 부처에서 경제실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바란다”고 강조한 뒤 “세계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며 “청와대는 (정책의) 초점을 서민들에게 맞춰야 한다. 경제실거리에 그렇게 그 범위에서 가장 시급한 물가를 잡는 것도 서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광주·전남 국회의원의 의정 성적표는?

법안 발의 우수... 본회의의 참석 합격점

통합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가 의정활동 등을 기본적인 ‘물감’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의 절반이 17대 국회 평균을 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85% 이상의 본회의의 참석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인터넷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국회감시사이트 ‘열려라 국회’에 따르면 17대 국회의원의 평균 대표발의 법안 건수는 18건(연평균 4.3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회의원 299명 가운데 100명이 18건 이상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0명의 국회의원이 포함됐다.

김효석 원내대표와 김동철 의원이 4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 광주·전남지역 의원 가운데 공동 1위를 차지했으며 이영호 의원(38건), 주승용 의원(36건), 이낙연 의원(33건), 강기정 의원(22건) 순으로 집계됐다. 이어 서갑원·최인기 의원(20건), 우윤근 의원(19건), 양형일 의원(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정동채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그쳤다.

또, 보궐선거로 국회에 진출한 채일병 의원과 김홍업 의원은 각각 6건과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가결 법안 건수는 1건과 0

건에 그쳤다.

가결률 측면에서는 서갑원 의원이 20건의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15건이 가결, 75%의 가결률을 기록하면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우윤근 의원이 19건의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11건이 가결, 57.8%의 가결률로 2위, 최인기 의원이 20건의 대표 발의 법안 가운데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55%의 가결률로 3위를 차지했다.

한편, 본회의의 참석률이 85%를 넘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으로 나타났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공천 추가 접수

통합민주당은 27~29일 후보자 신청이 없는 지역구 72곳과 ‘공직선거법’ 개정 후 분구 및 통·폐합된 선거구를 대상으로 공천 추가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경기 용인 갑·을이 기흥, 수지, 처인 등 3곳으로, 광주 광산구가 2곳으로 각각 분구됐으며, 전남에서는 현행 함평·영광, 담양·곡성·장성, 광양·구례, 장흥·영암, 강진·완도, 해남·진도 지역구가 함평·영광·장성, 담양·곡성·구례, 광양·영암·장흥·강진, 해남·진도·완도로 각각 재조정됐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수도권 단수 신청자 37명을 시작으로 후보자 면접 심사에 착수한 데 이어 27일 오후 충청 등 나머지 단수지역 신청자 27명과 복수신청 지역 16곳의 33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명박대통령 주재 첫 국무회의 “구 장관 3명 외주세요”

새 정부의 일부 각료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으로 줄줄이 낙마함에 따라 다음달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국무회의도 ‘기형적’ 형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내정된 15명의 장관 가운데 3명의 결석이 발생함으로써 남은 인원으로는 ‘국무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

무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헌법 조항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 이에 따라 청와대는 참여정부 장관 가운데 3명에 대해 장관직 사표는 수리하되 국무위원직을 당분간 유지토록 해 국무위원 수를 맞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현 장관 가운데 3명에게 양해를 구해 국무위원직만 유지토록

한 뒤 다음달 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는 계획”이라며 “그러나 한승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원만히 이뤄진다고 보고 회의 주재는 이 대통령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와 관련, “당초 14명으로 국무회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3명이나 사퇴함에 따라 이는 불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명문대 합격에 위한 과학 교육의 길!!!

중·등·부 프로그램

- 주중 : 중1, 2, 3 내신 대비반
- 중1, 2, 3 중간기말고사 대비반
- 특목고 대비 기초반
- 특목고 대비 실력반
- 주말 : 중1, 2, 3 중간기말고사 대비반
- 특목고 대비 기초반

고·등·부 프로그램

- 주중 : 물리 1, 화학 1, 생물 1, 지구과학 1
- 고1 과학 내신 대비반
- 중3 대상 고1 과학 선수 학습반
- 주말 : 물리 1, 화학 1, 생물 1, 지구과학 1
- 고1 과학 내신 대비반
- 중3 대상 고1 과학 선수 학습반

퍼펙트사이언스아카데미

과학 전문 학원

상담문의 : (062) 673-0900 / 010-9468-0979

이사장 / 조성훈

원장 / 조동휘

생물 / 김성하

물리 / 공현식

화학 / 유빈

화학 / 남지연

지리 / 양은아

생물 / 오혜영

선거유세 영상 차량 접수중

선명한 LED 영상 홍보 차량

(주)럭키세븐 T. 232-7777

건물 매각

2007년 건물리모델링 완료

임/대/현/황

4층 원룸8실

3층 파부관리실 투룸1실

2층 사무실(중실)

1층 퓨전호프(상업중)

지하 룸카페(상업중)

- 건물소재지 : 전월동 315-7 구,관내(세성정, 비스모인)
- 대 면적 : 200평
- 건물 : 350평 (지하1층 지상4층)
- 용도 : 준주거지역
- 매매가 : 상담 후 결정
- 매월임대료 : 보증금 2억3천 원세600만원
- 은행대출금 : 4억5천 (연3%연화자금)

연락처 T. 017-622-8763

www.hanbitgosi.co.kr ▶ 공시생은 한빛같이 한빛을 선택한다.

2008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시험 거침없이 합격하라 - 한빛이 응원합니다.

79급 공무원 합격압도적 위

= 합격성이 말하는 최고의 강의 =

79급 이론반 (2개월 완성)

★ 슈퍼 올스타팀의 합격신화는 계속된다 ★

= 9급전직종 합격특강! 백발백중! =

일문제풀이반 (4주완성)

★ 교재무로제공 한빛교수진 편저

= 최단기 접수업그레이드 필수과정 =

전과목 단과반개설

★ 과목별 전국 최강교수진 구성 ★

개강 3월 3일

첫진도 사전예약접수중

비교거부! 최강의 강사진! 전국최고의 시설!

이동수업! 한빛이 최고! 직접확인하십시오!

한빛대원에 동원한 한빛수강생들

전국 최고의 강사진은 한빛에 있다.-79급 올스타팀 총출동

79급 예비공무원 여러분 2008 공무원 합격의 지름길 한빛입니다. - 한빛고시 교수진일동 -

한빛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062) 234-0234